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채권혼합형 펀드]

(운용기간 : 2016년07월19일 ~ 2016년10월18일)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0층
(전화 02-6308-0500, <http://www.trustonasset.com>)

펀드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채권혼합 펀드가 2016년 3/4분기 (2016.07.19. ~ 2016.10.18.)를 마감 하며 분기 운용보고서를 드립니다. 저희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임직원, 투자철학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 초 이후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 최근 영국 브렉시트 (Brexit) 등 우려 요소에도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으로의 글로벌 자금이 몰리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재차 확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시장의 변동성에도 더욱 투자원칙에 집중하여 장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지난 3개월간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운용개요

지난 분기 (2016.07.19. ~ 2016.10.18.) 동안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채권혼합 펀드의 수익률은 +0.09%로 동 기간 비교지수(KOSPI 30%+KS국고채1~2년 65%+CALL 5%) 수익률 +0.43%를 -0.34%pt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운용펀드 기준).

2. 운용경과

[주식]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과 함께 주식시장 회복

2016년 3/4분기 시장은 예상치 못했던 브렉시트 (Brexit) 불발로 인해 1926pt까지 급락 후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과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는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추가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EU 국가들이 줄지어 탈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으며 오히려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가 공고히 될 수 있다는 점, 한국 기업들의 EU향 수출 특히, 영국 비중은 1~2%대에 그친다는 점 등 기업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결국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추가적인 부양책과 함께 글로벌, 이머징 경기 회복세와 기업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가 유효하게 작용하여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며 글로벌 자산시장의 변동 폭을 재차 확대하였으나 시장은 빠른 속도로 냉정을 찾고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보다는 중장기적 경기 방향성 및 펀더멘탈에 중점

브렉시트 (Brexit), 트럼프 후보의 미 대선 후보 당선이라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도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단기간 내에 냉정을 되찾았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장기 유망한 이머징 시장을 저가 매입하였습니다. 글로벌 악재 이후에 이머징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약 8년 전,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신청 이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격적인 통화완화와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실시해 주가가 급등한 것 또한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결국 단기 악재보다는 중장기 경기 방향성과 기업 펀더멘탈이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기계, 중공업, 은행 등
경기민감업종
비중 확대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방향성 점검**

저희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채권혼합 펀드는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실물경기관련 경기의 선행지표들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점, 바텀업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체력이 3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점을 강조 드려왔습니다. 이번 분기 또한 기계, 중공업, 은행 등 경기 회복세와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경기 민감업종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인터넷, 제약바이오, 화장품, 음식료 등 실적 안정성이 뛰어나 경기 민감업종의 실적악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업종은 차익실현을 하는 등 비중을 지속 축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방향성을 다소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기 시장의 수익률을 다소 하회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우상향 기조 또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저해한 원인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모델인 갤럭시노트7 발화 그리고 최근의 단종 결정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IT부품사업부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자산가치 부각 기대감이 추가 상승을 가능케 하였다는 결론입니다.

**시장대비 낮은 비중의
삼성전자 보유로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

저희 장기성장30 펀드는 국내 IT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시작되는 국면임에 포착하여 해당 업종의 비중을 이전보다 확대하였고 높은 비중을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리스크 대비 리턴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시장 대비 낮게 가져왔습니다. 펀드가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IT 업종 및 펀드 내 종목들의 상승에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시장대비 적은 것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권]

**매파적 잭슨홀 미팅,
주요국 정책기조 변화
등의 이슈로 금리 상승**

전분기말까지 강세가 지속된 채권시장은 7월 BOJ회의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글로벌 금리가 반등하였고, 미국의 고용지표 2개월 연속 개선 및 8월 국내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금리 동결 결정으로 인해 금리는 상승, 채권시장은 약세 반전하였습니다. 특히, 8월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금통위 의사록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언급되면서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9월 FOMC 및 BOJ 회의결과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다소 완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는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도이치뱅크 우려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국내 국고 50년물의 성공적 입찰 마무리 등 9월말 우호적인 수급여건으로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10월 들어서는 주요국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글로벌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가 나타났고, 기재부의 50년물 추가발행 가능성 언급, IFRS4 도입 유예 등의 뉴스도 약세재료로 작용하면서 금리는 다시 재반등하였습니다. 특히, 옐런의장의 ‘고압경제’발언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는 상승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국내 채권금리는 2016년 10월 18일 현재 국고 3년물 기준 2016년 7월 18일 대비 11.9bp 확대된 1.346%로 마감하였습니다. 분기 중 중장기물 채권의 상대적 약세로 국고채 3년과 10년의 금리 차이는 확대되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축소되었으나 분기말 높은 금리변동성으로 인해 다시 확대되면서 전분기 대비 확대되며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채권 투자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고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은행채, 공사채 등 우량 신용채권의 편입을 통해 이자수익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3. 운용계획

[주식]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국면
진입으로
기업 투자 확대,
민간 소비 개선 예상**

저희는 미국 금리인상 이슈에도 글로벌 각국의 통화, 재정정책 공조 등 경기부양 노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며 2017년 국내외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정책은 그 마감과 함께 재정정책 확대로 귀결되기 마련이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재정확대 기조와 함께 오랜 디플레이션 시대를 마감하고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 즉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욱 강화될 수 의미한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증시 또한 오랜 성장 부진에도 2011년 이후 기업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씨클리컬 업종(에너지, 소재, 산업재)의 이익 정상화로 5년 간의 박스권을 탈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은 부진하였지만 그 가운데 이익률 개선, 즉 기업의 체질 개선은 지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매출 성장이 일어난다면 경기방어주 대비 경기민감주의 상대 강도 개선은 초입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기민감 업종은
IT, 증권, 철강, 건설
내수 업종에서는
가격메리트 발생한
음식료 종목 관심**

경기민감 업종은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3년간의 감익 추세를 마치고 증익 추세로 돌아서는 반면, 대부분 시가총액이 장부가치를 회복하는 등 벤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리턴 측면에서 여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동안 공급과잉과 수요위축으로 수출단가 하락의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재 섹터는 공급과잉 구조조정과 함께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수요확대 환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채권혼합 펀드는 이러한 탑다운 시각을 가지고 지수 상승을 초과하여 중장기 상승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기민감 업종들 중에서 오랜 부진 이후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비해 아직 벤류에이션 메리트가 충분하다 판단되는 IT, 증권, 철강, 건설 업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였고 내수 업종 중에서는 견조한 실적에도 최근 주가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음식료 업종 위주 선별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운용 보고를 드리는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S&P500 기업의 80%가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부진 여파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 기업들의 실적을 면밀히 체크하여 2017년 시장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종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

**국내외 정책기대감
약화 가능성**

국내 경제는 주요 경제지표 결과 해석이 혼재되어 있으나 아직 경기 개선신호로 인식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잭슨홀 미팅 결과 밝혀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성향이 ECB나 BOJ 및 국내외의 추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금리 등락 전망**

연내 한차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고 주요국의 추가 정책 기대감 약화는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적으로는 아직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일정수준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매수수요가 생기면서 다시 되돌리는 등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크레딧 채권은 우량 크레딧 채권의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의 약세 흐름 이후 가격 메리트가 생긴 크레딧채권의 스프레드는 일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말 마찰적 요인에 의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를 대비하여 연말로 갈수록 매수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채권운용은 탄력적인 드레이션 및 만기 전략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량 크레딧 채권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행하여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5년이라는 장기간의 박스권과 기업 실적 악화라는 긴 터널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채권혼합 펀드는 국내 산업과 기업의 펀더멘탈의 방향성에 집중하여, 철저한 바텀업 리서치를 통해 고객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큰 일교차가 이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반복되며 2016년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CIO 황성택

멀티에셋부문 CIO 이윤표

주식운용2본부장 안홍익

주식운용2본부 1팀 차장 조상현

주식운용2본부 1팀 대리 김정훈

채권운용본부 2팀장 문성호 拜上



1. 펀드의 개요
2.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8. 공지사항

<참고 - 펀드용어정리>

1. 펀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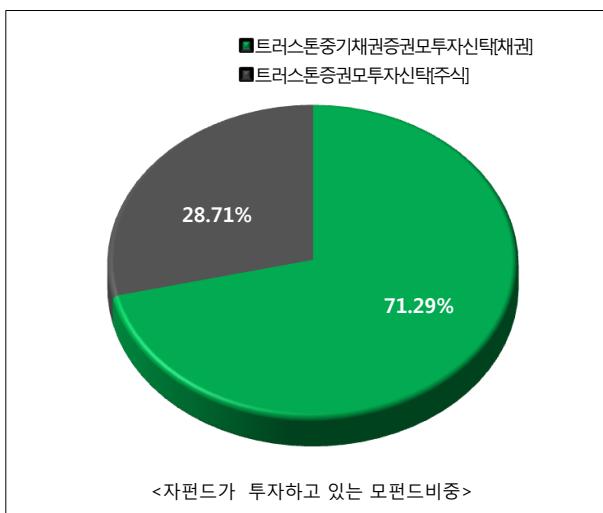
■ 기본정보

적용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투자위험등급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5등급	A0026
A		A0027
C		A0028
Ce		A0029
Cp		AH597
S		AQ411
S-P		AQ412
펀드의 종류	채권혼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운용기간	2016.07.19 ~ 2016.10.18	존속기간
자산운용회사	트러스톤자산운용(주)	펀드재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주1)}	www.trustonasset.com	일반사무관리회사
상품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 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2)판매회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구성



※ 자펀드 자산현황을 100으로 가정하였을때 각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단기대출	삼성증권	2016-10-18	124	1.28	2016-10-19	대한민국	KRW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억원)

성명	직위	출생년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안홍익	이사	1976년	13	4,213	3	11,761	2109001761
조상현	차장	1978년	7	4,125	1	9,818	2109001260
김정훈	대리	1988년	5	2,235	-	-	2114000182
문성호	차장	1977년	16	5,351	-	-	2109001217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주식	2012.08.09 - 2014.08.28	이무영
	2012.08.09 - 2015.05.26	정인기
	2015.05.27 - 현재	조상현
	2016.01.20 - 현재	김정훈
채권	2011.04.19 - 2014.08.28	여종훈
	2014.08.29 - 현재	문성호

주) 2016. 10월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分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Cp	자산운용사	0	0.07	0	0.08	
	판매회사	1	0.21	1	0.2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	0.29	1	0.29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증개 수수료	단순매매.증개수수료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2	0	0.02
		합계	0	0.03	0	0.03
	증권거래세	0	0.04	0	0.04	
S	자산운용사	0	0.07	0	0.08	
	판매회사	0	0.06	0	0.0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15	0	0.15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증개 수수료	단순매매.증개수수료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2	0	0.02
		합계	0	0.03	0	0.03
	증권거래세	0	0.04	0	0.04	
S-P	자산운용사	0	0.07	0	0.08	
	판매회사	0	0.05	0	0.0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13	0	0.13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증개 수수료	단순매매.증개수수료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2	0	0.02
		합계	0	0.03	0	0.03
	증권거래세	0	0.04	0	0.04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증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8. 공지사항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모자형 구조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의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이 가입한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가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증권자 투자신탁[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주)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http://www.trustonasset.com> / 02-6308-0500
금융투자협회 <http://dis.fundservice.net>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에서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이며, 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댓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신탁업자란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신탁업자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판매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